

세계적 컬렉터 김창일 씨가 본 광주 미술

“서열에 딱 막혀 젊은 작가들 설 자리 없더라”

인맥 떠나 작품성 승부해야 광주 미술 살것
지역화단 한계 극복 갤러리 전속작가제 필요



24일 광주 시립미술관을 찾은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 김창일 회장은 광주의 젊은 작가들에게 '독창성'(originality)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세계 예술계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미술계 '큰손'

■ 김창일 회장은 누구

자타가 공인하는 미술계의 '큰손'이다. 지난해 영국의 예술잡지 아트리뷰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 예술계 영향력 있는 인사 100인'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명이 아라리오 전속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김 회장 역시 '시킴'(CI KIM)이라는 이름으로 작가활동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본 그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광주지역에 아라리오 갤러리를 오픈할 의향이 있다”며 “광주지역 작가들과의 전속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십이지 달력’ 직접 만들어 보세요

국립광주박물관 ‘십이지로 보는 새 희망’ 행사

신년을 맞아 국립광주박물관이 오는 2월21일(매주 목요일 오후 2시30분~2월7일은 제외)까지 생활 속 십이지 문화를 찾아보는 ‘십이지로 보는 새 희망’ 프로그램을 연다.



이번 프로그램 국립광주박물관의 ‘십이지로 보는 새 희망’에서는 특별로 얹힌 이야기와 의미를 배우고, 십이지 전통 문양이 담긴 달력도 직접 만들 수 있다.

가족 단위 참가가 가능하며, 이론교육 30분과 체험학습 1시30분으로 진행된다. 재료비는 2천원. 문의 062-570-707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라도 맛·멋, 그리고 사람 이야기 담아

답사여행작가 이철영씨 ‘전라도 기행’ 펴내

전라도의 구수하고 푸근한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답사여행작가 이철영(46)씨가 5년에 걸쳐 전라도 구석구석을 여행한 기록을 담은 ‘전라도 기행’을 펴냈다.

이 책은 전라도 토박이인 저자가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 S-Oil 사보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은 것으로, 남도의 숨은 풍경과 맛, 문화유적과 역사 등 남도의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겼다.

또 말바우 시장과 얽힌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대형 마트에 밀려나는 재래시장의 현실을 걱정하는 등 세상은



물까지 다양한 소재를 남도의 살가운 풍경으로 담았다.

저자는 서문에서 “역사든, 사람이든, 풍경이든 간에 모든 것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반성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국립박물관 문화재청 이관 재고하라”

박물관협회 등 성명

한국박물관협회 등 박물관 관련 단체와 학회들은 24일 국립박물관을 문화재청으로 이관시키는 등의 신청 부 박물관 관련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 430여개 국공립 및 민간박물관이 소속된 한국박물관협회와 한국박물관학회, 문화교육학회 등 6개 단

체들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물관 관련 정책은 퇴보적인 발상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립 박물관은 우리나라 문화 자존심의 상징적 존재”라며 “다른 선진국 사례들과 같이 분명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문화시대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서거 음악인 조명 작업 활발

탄생 100주년 맞아 카라얀 녹음 음반 등 출시
푸치니 관련 공연·루치아노 파바로티 음반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이었던 지난 2006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음악계는 온통 모차르트로 넘쳤다.

2008년 올해는 탄생 100주년이 되는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1908~1989)이 그 바통을 이어 받았다. 또 탄생 150주년을 맞

은 작곡가 푸치니(1858~1924)와 지난해 타계한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조명 작업도 활발하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카라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대평가 된 지휘자”라는 평을 하기도 하지만 클래식 문화향도 지극히 눈을 감고 연주에 몰두하는 그의 사진에는 익숙할 정도로 카라얀은 ‘스타성’을 갖춘 전무후무한 지휘자였다.

이른바 ‘카라얀 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반이 지난해 말부터 쏟아지고 있다.

현재 가장 눈길을 끄는 음반은 도이치 그라모폰이 발매한 ‘100주년 기념 마스터 레코딩스’이다. 1959~1979년까지 카라얀이 베를린 필과 빈필을 지휘하면서 녹음한 명곡을 담은 이 음반은 모두 10장으로 구성돼 있지만 가격은 4만원대로 저렴하다. 베토벤의 교향곡 ‘3번’과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등이 포함돼 있으며 로스트로포비치 등 명

연주자들이 함께 했다.

도이치 그라모폰은 또 ‘카라얀 심포니 에디션’(37장)을 내놓을 계획이며 ‘카라얀 골드 시리즈’ ‘더 뮤직 더 레전드’ 등도 발매한다. 소니BMG는 ‘카라얀 100주년 기념음반’(2장)을 내놓았으며 EMI도 오케스트라곡을 모은 세트(88장), ‘베토벤 교향곡 전집’(5장), ‘더 그레이트 레코딩’(8장) 등을 발매한다.

푸치니는 ‘라 보엠’, ‘나비 부인’, ‘토스카’, ‘투란도트’, ‘마농레스코’ 등 주옥같은 오페라를 남긴 작곡가다. 오는 4월 10일~13일까지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에서는 한·중·러 합작 오페라 ‘투란도트’가 공연되며 9월엔 이탈리아 볼로냐 오페라단의 ‘토스카’도 공연된다.

파바로티 관련 음반도 많이 출시되고 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라이브 콘서트 컬렉션’(10장), ‘파바로티 스토리’(2장), ‘언포갓터블 파바로티’(2장) 등이 대표적이다.

김미진기자 mekim@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banner for Happy Time Cinema featuring Mega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eniors Cinema, and Jeil Cinema with various film listings and showtimes.